

DDA, 2007년 2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라미 사무총장이 DD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적한 과제에 비해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출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DDA 협상의 주요 국가중 하나인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7월 1일자로 종료되고, 농업법 개정이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DDA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1. DDA 농업협상 추진 과정

2001년 11월에 출범한 DDA 협상은 보조와 국경보호 수준을 상당히 감축하거나 철폐한다는 농정개혁의 장기 목적 아래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Cancun) 각료회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등 여러 차례 협상 타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 무역 자유화 내용과 이행일정을 담은 모델리티(modalities)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2003년 3월에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에 실패한데 이어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또한 무산됐으며, 이 회의를 계기로 개도국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이른바 개도국 모임인 G20과 저개발국 모임인 G90이 태동되었다.

2004년 7월에는 세부원칙에 못 미치지만 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본 골격(Framework)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기본골격 도출시 회원국들은 관세와 보조금을 구간별로 나누어 높은 구간에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에 열린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를 철폐하고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무쿼터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의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5년 5~6월에 주요 6개국(EU, 미국,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은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였으나 불충분한 미국의 국내보조 양보안과 EU의 시장접근 개선 제안, 그리고 개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 품목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7월 24일에 WTO 라미(Lamy) 사무총장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다.

협상 중단 직전인 2006년 6월 22일에 농업협상회의 펄코너(Falconer) 의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세부원칙 초안(draft)을 제시했으나, 이 초안에는 700개가 넘는 대안(괄호로 제시)이 나열돼 있어 효과적인 협상 초안으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표 1 DDA 협상 추진 일정

날짜	추진과정	세부내용
2001.11	도하 각료회의	DDA 출범에 따른 협상 목표와 일정 수립
2003. 3	하빈슨 초안 채택 무산	수출입국간 의견차로 인해 모델리티 협상 시한(2003.3)내 합의 도출 실패
2003. 9	칸쿤 각료회의	싱가폴 이슈에 대한 미국·EU와 개도국 그룹의 의견대립으로 합의 도출 실패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G20 결성
2004. 8	기본골격 합의	모델리티 도출을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
2005.12	홍콩 각료회의	수출보조금 철폐 등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심 쟁점은 미해결
2006. 7	G6 회의	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G6)은 농산물 관세, 보조금, 공산품 관세 감축에 대한 의견차 조율에 실패
2006. 7	DDA 협상 중단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 중단을 선언
2006.11	DDA 협상 재개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협상 재개를 선언
2007. 1	다보스 포럼 계기 소규모 각료회의	25개국 각료들은 DD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2. 최근의 논의동향

2006년 하반기에는 협상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그동안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타협점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들은 각료들이 각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등 양자협상을 가지면서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폭, EU의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7년 초에는 미국과 EU가 비밀리에 공동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비록 이에 대해 양국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DDA 협상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합의문 도출 가능성은 DDA 협상이 2007년 상반기 내에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협상이 중단된 사이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오슬로 그룹 또는 non G6라고 하는 협상 그룹이 형성되어 향후 쟁점별로 타협 가능한 수준을 검토해 보고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

라미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TNC에서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Falcon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 대사급 협의를 주최하여 협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25개국 각료들이 WTO협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으며, 이 기간 동안 주요국들은 활발하게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을 가지면서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보스 포럼 이후 각 국은 제네바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DDA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국내보조 감축폭과 EU의 평균 관세감축률, 민감품목의 수, G33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품목의 수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협상 진전의 관건이다.

EU는 G20이 제시한 관세감축률 까지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케언즈 그룹은 그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 미국 등은 평균 감축률보다는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EU가 제시하였던 60%보다 높은 감축률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최상위 구간의 감축률에 대해서

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민감품목의 수와 관련해서도 미국, G20과 EU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미국, G20은 전체 관세라인의 1%를 고수하고 있으나 EU는 8%를 제시하였으며 최근 미국이 국내보조에서 양보할 경우 민감품목의 수를 더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감품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을 하는 만큼 TRQ 증량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국, G20 등은 국내소비량을, EU는 현행 수입물량을, G10은 현행 TRQ 물량을 증량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소비량을 증량기준으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전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EU, G20은 극소수의 특별품목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G33은 전체 세번의 20% 이상 특별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협상이 중단되기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53%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브라질, EU, 인도 등 여러 회원국들은 그보다 높은 6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논의에서는 G20, 케언즈 그룹 등이 그동안 품목특정 상한을 설정하고, 가격차 보전 비율을 제한하고, 목표가격을 고정시키는 등의 규율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블루박스 지급액이 해당 품목의 생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이중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과 해당 품목의 AMS를 감축하는 만큼 블루박스를 쓸 수 있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은 금년 3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의 농업법 개정과 TPA 연장 여부, 프랑스 대선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DDA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DDA 협상이 각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의 DDA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는 약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주요국들이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루어낸다면 협상이 급물살을 타 연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표 2 주요 협상 일정

일자	회의	장소
2월 19~23일	G4 고위급 회의	런던
2월 23일	WTO 농업위원회 비공식 특별회의(잠정)	제네바
3월 5일	브라질, 인도 각료회의	제네바
5월 9~10일, 7월 25~26일, 10월 9~10일, 12월 19~20일	WTO 일반이사회	제네바
3월 28일, 6월 20~21일, 9월 26~27일, 11월 21~22일	농업위원회	제네바

참고자료

임송수 외. 2007.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2007.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DDA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 정책 세미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chicken.ca/DefaultSite/index_e.aspx?DetailID=43